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불세출의 위인 (3)

주체105(2016)년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한차례의 력사적인 리정표가 마련된 뜻깊은 해였다.

뜨거운 인민사랑과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온 겨레와 세인의 각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해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획기적인 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신 것이다.

주체적통일로선을 불변의 침로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공화국에서 민족자주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던 력사적시기에 소집된 뜻깊은 대회였다.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는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다 아는것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승리하자면 옳바른 로선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로선수립이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옳바른 로선이 있어야 조국통일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족주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당대회장으로 쏠린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야말로 통일위업실현의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이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뜨거운 민족애가 그대로 맥박치고있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을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비롯하여 온 겨레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선민족의 피줄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조선로동당의 통일로선은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화되여있고 실천속에서 그 생활력이 확증된 통일에로 가는 가장 곧바른 길이다.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불멸의 대강

…

이것은 통일위업실현의 불변의 진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온 겨레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의 분출이였다.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방략제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이라고 하시였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렬과 망국의 길이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70여년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기도 하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문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할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이룩되게 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전제를 마련해나가는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져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누구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우리 민족의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참으로 통일을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가장 곧바르게 이룩할수 있는 너무도 정정당당한 통일투쟁의 방략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한 문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갈데 대한 문제,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데 대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획기적인 조국통일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겨레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박 철 남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분렬의 장벽, 대결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공화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망에 맞게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제안들을 련이어 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79(199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분렬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는것은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자주화의 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력사의 비극이라고 하시면서 북남사이의 장벽을 마스는 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리는것이였다.

민족의 분렬과 대결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을 그대로 두고 통일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사실상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원한의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는것은 북남사이의 긴장과 대결을 끌장내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수 있게 하며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제안에 《장벽이 없다.》고 하면서 기존대화의 재개와 《3통협정》의 체결 등을 고집해나섰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정부는 1990년 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대표들의 제2차련합회의를 열고 남조선당국이 보내온 회답편지를 분석검토하고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과 새로운 적극적인 대책을 담은 편지를 남측에 또다시 보내였다. 1990년 2월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남조선 《통일원》(당시) 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여 남조선당국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일대에 콩크리트장벽이 없다고 고집하는 조건에서 장벽의 유무를 현지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참관단을 보내줄것을 제의하면서 장벽을 수록한 필림자료를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남측은 《정치선전》을 운운하며 끝내 받아가는것을 거부하였다.

3월 22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대표협의회에서는 정부, 정당대표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새로운 적극적인 제안을 담은 편지를 공화국정부, 정당대표협의회의 명의로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다시금 보내였다.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구상을 무르익히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79(1990)년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획기적인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국통일5개방침은 온 민족의 절박한 념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문제들을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개방침은 통일의 주체인 전체 조선민족의 힘과 지혜를 총발동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민족의 통일념원과 정세발전의 추이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였다.

본사기자 홍 범 식

조국통일은 민족의 무궁번영의 담보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민족분렬의 참혹한 비극은 장장 70여년이나 이어져오고있다.

이 기나긴 나날 우리 겨레는 언제 한번 통일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족의 절절한 소원인 조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밤은 깊어도 새날이 오듯이 조국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통일은 민족사의 필연이고 대세이다.

다 아는것처럼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민족이며 한강토우에서 반만년의 오랜 력사적기간 한피줄을 순결하게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조선민족처럼 대대로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그런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은 없다. 이러한 민족이 계속 둘로 갈라져 산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것이다.

비록 민족분렬이 70여년동안이나 지속되고있지만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갈라져 산 70여년이 함께 살아온 5천여년의 자랑찬 력사를 지워버릴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이 땅에 몰아치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내고 온 겨레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강토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룩되여야 한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도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최대의 열점지대로 되고있다.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 방대한 무력이 항시적으로 대치되여있다. 또한 침략적인 외세의 첨단무장장비들이 남조선에 수시로 반입되고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 뻔질나게 벌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로 되고있다.

민족분렬의 지난 70여년은 말그대로 우리 겨레에게 어느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게 한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으로 점철된 나날이였다.

통일의 그날이 와야 평화롭고 번영하는 래일이 앞당겨지게 된다는것이 오늘 온 겨레의 목소리이고 념원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한 미래에로 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군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군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

바로 이것이 통일된 우리 나라의 모습이고 민족의 밝은 미래이다.

본사기자 강 류 성

한 녀성민주인사를 참된 애국의 길로 (3)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던 류영준선생에게 은혜로운 태양의 빛이 비쳐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선생에게 평양에서 열리는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도록 초대장을 보내주신것이였다.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였다는 환희와 함께 조국의 통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력사적인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선생은 초대장을 받아안자마자 남먼저 북행길에 올랐다.

평양에 도착한 선생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환대와 극진한 사랑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자기를 력사적인 회의의 주석단에 앉도록 배려해주시였던것이다.

그는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랐다. 주석단성원들가운데 녀자는 자기 한명뿐이였다.

이에 대하여 생전에 그는 늘 이렇게 회억하군 하였다.

《결코 그때 내가 잘나서 영광스러운 주석단성원으로 된것이 아니다.

남조선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외세와 반동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모든 녀성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다. …》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끝난지 얼마 안되였던 주체37(1948)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영준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민주녀성동맹 일군들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4월남북련석회의가 열리는 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뵙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던 남녀의 녀성일군들은 바라고바라던 소원이 성취된 기쁨으로 하여 높뛰는 가슴을 진정할길 없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외세와 반동파들의 파쇼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녀성들의 사회적해방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그들에게 사의를 표하시면서 남조선녀성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높이 평가한다고,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뜻 깊은 그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조선민주녀성동맹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류영준위원장을 비롯한 남조선민주녀성동맹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일을 잘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회의가 끝난 후 남조선에 나간 류영준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민족분렬의 고착화에로 이어지는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선생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장소들마다에서 북조선의 현실을 알려주면서 전민족이 따르고 받들어야 할분은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고 격정에 겨워 연설하군 하였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탄압책동이 더욱더 우심해질때에도 그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1949년 6월 뜻깊은 조국전선결성대회에 참가하려고 평양을 또다시 찾아온 선생은 그때부터 공화국의 품속에서 긍지높고 보람넘친 생활을 하게 되였다.

그는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되였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으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류영준선생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나날과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끝없는 그 사랑속에 그는 80고령의 나이에 이르도록 사업하였고 년로보장후에도 이전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여생을 편히 지내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오랜 세월 수난에 찬 길을 걸어오던 평범한 녀성을 민족앞에 떳떳이 내세워주고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여주신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이였다.

하기에 류영준선생은 1972년 9월 어느날 자기의 한생을 총화하며 조카와 그 아들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여든두살이면 오래 산셈이다.

쉰여덟 살까지는 일제와 미제의 통치아래서 살았고 그후 스물네해동안을 수령님의 품속에서 살았다.

내 일생에 동양삼국을 넘나들며 이름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독립운동자, 박사, 영웅이라고 하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상 천하에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다.

수령님께서 지지리 고생만 하던 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영예를 안겨주신 그 은혜를 나는 이제 죽어 백골이 진토되여도 잊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잊지 말고 수령님께 꼭 충성을 다하거라.》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렬사들속에서 류영준선생은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있다.

공화국은 진정한 어머니의 품, 빛나는 삶의 품이라고.

본사기자

6.15 공동선언기념조형물 제막식 진행

남조선강원도 고성군에 6.15공동선언기념조형물이 세워졌다고 한다.

《하나되여》라는 주제의 조형물은 화강석으로 된 받침대우에 두손을 모은 형상으로 제작되였는데 《남과 북이 하나되여 이루어나가는 꿈과 희망》을 의미하고있다고 한다.

6.15공동선언기념조형물은 고성군이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조선강원도청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고 그 력사적가치를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설치하였다고 한다.

제막식이 지난 18일 진행되였다.

제막식은 기념영상시청, 남북공동선언문랑독, 조형물제막순서로 진행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